

AI 선도기업 10곳과 AI 인재 양성 본격

전북대, AWS코리아 · 업스테이지 · 크래프톤 등… 교육 · 연구 · 취업 잇는 산학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및 기관들과 손잡고 지역 AI 전문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전북대는 지난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Amazon Web Services(AWS) Korea를 비롯해 DH오트리드, NXT Cloud, 리더스시스템, 신한핀드파트너스, 업스테이지, 오케스트로, 전북아이티산업협회, 크래프톤, 퓨리오사이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 및 지원서한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분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AI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과 기업이 교육·연구·산학협력 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AI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Amazon Web Services(AWS) Korea를 비롯해 DH오트리드, NXT Cloud, 리더스시스템, 신한핀드파트너스, 업스테이지, 오케스트로, 전북아이티산업협회, 크래프톤, 퓨리오사이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 및 지원서한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AI 교육과 연구 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또 AI와 AX 신기술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인턴십과 현장실습,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현장 경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전반의 최신 AI 기술과 실제 업무 환경을 접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기업들은 우수 인재 채용과 연계하기 위해 채용설명회 개최와 채용 우대방안 마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터 현장 경험, 취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에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학생들에게는 미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진로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AI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AI 교육 혁신과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국가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5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개최식.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전국 태권도인, 우석대로 집결

우석대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성료

전국 3692명 참가… 품새 등 열전 펼쳐

우석대학교가 개최한 '제24회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전국의 태권도 유망주 3,692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우석대학교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품새 1,610명, 격파 1,214명, 겨루기 888명 등 모두 3,69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고 밝혔다. 대회는 품새와 격파, 겨루기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품새 경기는 공인품새와 자유품새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으로 치러졌으며, 공인품새 고등부 3학년 개인전에서는 김성주(초월고)와 박명현(천안오성고)이 각각 남녀 우승을 차지했다. 자유품새 대학·일반부 개인전에서는 강태준(나사렛대)과 이고은(와이제이)이 이태권도장이 정상에 올랐다. 격파 부문에서는 수지축희전격파와 수평축희전격파, 체공도약격파, 종합격파 종목이 펼쳐졌으며, 종합우승은 무한태권도장이 차지했다. /오상근 기자

겨루기 경기는 남녀 고등부 10개 체급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자부에서는 광주체육고와 충북체육고, 강하고 등이 체급별 우승자를 배출했으며, 여자부에서는 홍주고와 대구보건고, 무주고, 신목고, 완산여고 등이 정상에 올랐다. 겨루기 종합우승은 남자부 풍생고등학교와 여자부 신목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하지웅(부흥고)과 최선영(운천고), 최우수지도자상은 김주연 풍생고 감독과 이강철 신목고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개회식에는 박오준 총장을 비롯해 태권도계와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우석대학교 태권도시범단과 품새단이 창작 태권도극 '신별주부전'을 선보여 화려한 격파와 품새, 액션 퍼포먼스로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현업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업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역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등 도내 8개 권역에서 현업업무종사자 1,115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2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학교 현장의 위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업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조리실무 종사자 566명을 비롯해 시설관리 218명, 미화 175명, 운전 및 통학지도 109명, 경비 49명 등이다. 교육은 위험성평가와 학교 안전사고 사례, 안전의 이해, 운영실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순 이론교육을 넘어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과 전문 강의를 함께 운영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급식실과 시설관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과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고령화하는 현업노동자의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정운동과 올바른 작업 자세를 실습하는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여름철 열사병과 탈진 등 운영실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 강사 초청 강의도 마련해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 덕과초등학교가 지난 24일 교내 강당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기념식'을 연 가운데, 천호성 교육감과 덕과초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은학교 혁신모델 새 출발 알렸다

남원 덕과초, IB 월드스쿨 인증… 탐구 중심 교육으로 세도약

남원 덕과초등학교가 국제비칼로로에어(IB) 초등학교과정(PYP) 월드스쿨 인증을 기념하며 탐구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작은학교 혁신 모델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덕과초등학교는 지난 24일 교내 강당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기념식을 열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비롯해 안충모 남원시장, 전웅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임종명 도의원,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덕과초는 2024년 6월 IB 관심학교,

2025년 2월 후보학교를 거쳐 올해 6월 IB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탐구 중심 수업과 평가를 꾸준히 실천하며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변화는 학생 수 증가로도 이어졌다. 2024년 27명이던 학생 수는 올해 7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역화·특성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며 농어촌 작은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인근 IB 중학교과정(MYP) 월드스쿨인 용북중학교와 연계해 초·중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기울

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덕과초의 성과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수업을 고민해 온 교직원과 학교를 함께 지원한 교육청, 지역사회가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탐구하며 세상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덕과초의 수업과 평가 혁신이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석 교장은 "이번 기념식은 IB 월드스쿨 인증을 함께 이뤄낸 교육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삶에서 출발해 세계와 연결되는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천호성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장 체감하는 교육정책 이어져야”

전북교총, 천호성 교육감과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 등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인사 안정, 학교 행정 부담 완화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23일 천호성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을 비롯해 이원형·김정희 부회장, 최충철 시군교총협의회장, 김영국 시군교총협의회 총무회장, 김은영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도영 교육사업연구소장, 오한섭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와 교원 인사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 소통 확대 등을 전북교육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새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만큼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소통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교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할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현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이번 소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복지 향상, 학교업무 정상화, 교육정책 개선 등 교육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 피지컬 AI

로봇 프로그램 운영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앵커(RISE)사업단은 지난 24일 총 4일 동안 AI부트캠프사업단 공학교육혁신센터와 함께 재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총 30시간 과정으로 PhysAI AI 로봇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이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로봇의 행동으로 구현하는 PhysAI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미래 로봇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립군산대 디자인팩토리에서 진행됐으며, 로봇 시스템 기초 이해와 장비 조립을 시작으로 기본 제어, 학습 데이터 구축, 로봇 추론, AI·비전 연동, 팀별 응용 프로젝트 발표까지 단계적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교육청, 늘봄지원실장 실무역량 강화 나서

참여 · 소통형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늘봄지원실장의 실무역량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참여·소통형 연수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도내 늘봄지원실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 초등 돌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늘봄지원실장의 실무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라디오 사연 형식으로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였으며, 참석자들은 실시간 댓글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본청 2층 강당에서 도내 늘봄지원실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진 학교늘봄협의체 우수사례 공유 시간에서는 버즈토의(소집단 토의) 방식으로 각 학교의 운영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 운영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등 돌봄·교육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